

다국어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형식에 관한 논의*

A Study on the Language and Script of Authorized Access Points Representing Multilingual Works

노 지 현(Jee-Hyun Rho)**

〈목 차〉

- | | |
|---------------------------|---------------------------|
| I. 서론 | 2. 접근점 기술 사례 |
| II. 거형 접근점의 의미와 구성원리 | IV. 전거형 접근점의 문자 형식에 대한 논의 |
| III. 우리의 목록 전통과 접근점 기술 사례 | V. 결론 |
| 1. 접근점 관련 규정 |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거대한 서지구조에서 개체를 식별하고 개체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데 있어 핵심적 요소인 전거형 접근점에 대해 우리 도서관계가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더불어 전거형 접근점은 어떠한 형식이 보다 바람직한 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KCR 2판 이후로 관련 논의조차 전무하였던 접근점의 개념이 오늘날의 정보환경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2) 국제목록원칙과 최근의 새로운 목록규칙에 반영된 전거형 접근점의 개념과 관련 규정을 분석한 후, (3) 우리의 목록레코드에 반영되어 있는 접근점의 실체를 추적해 가면서, (4) KCR 4판의 개정 작업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다국어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 그 중에서도 문자 형식에 대해 ① 원어 형식, ② 한글 형식, ③ 번자 형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키워드: 목록규칙, 목록동향, 한국목록규칙, 전거, 접근점, 전거데이터, 전거레코드, 전거형 접근점, 접근점 형식

ABSTRACT

With the rapid progress toward a new cataloging model, the revision of Korean Cataloging Rules (KCR) are under discu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suggestion on constructing authorized access points for multilingual works, especially focused on the language and script of authorized access points. To the end, this study investigates (1) the extended functions and meanings of access points on the new model, (2) related guidelines and regulations reflected in International Cataloging Principles and typical cataloging rules, and (3) the characteristics of access points in the current Korean cataloging practices. Finally, (4) desirable languages and scripts of authorized access points representing multilingual works are suggested.

Keywords: Cataloging rules, Cataloging trends, Authorized access point, Controlled access point, Authority data, Access point forms, Korean Cataloging Rules

* 이 논문은 2014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jhrho@pusan.ac.kr)

•논문접수: 2016년 11월 19일 •최초심사: 2016년 11월 29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1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123-147,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12.123>]

I. 서론

정보기술의 발달로 도서관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그 중에는 자료가 지닌 다양한 속성을 구조화된 형식으로 축적해 놓은 목록레코드가 있다. 목록레코드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방대한 장서에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기초 장치로 활용되어 왔지만, 오늘날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웹을 중심으로 한 정보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이용자들의 눈높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웹 환경에서 정보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일부로 인지된다. 이러한 정보는 다른 정보들과 다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이용자들은 그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목록레코드는 목록레코드에 포함된 개체의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 관련 있는 정보들 간에 ‘관계’를 설정하는데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FRBR이다. FRBR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도서관에서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여야 하며, 자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내용적, 물리적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개념 모형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모형은 데이터 모델링 분야에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개체-관계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되었다. 모형의 개발에 이러한 접근방법을 선택한 일차적인 이유는 현재와 같은 평면적이고 집합적인 서지구조에서 탈피하여, 개별 데이터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제된 메커니즘을 갖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개체’와 개체들 간의 ‘관계’ 그리고 각 개체에 대한 ‘속성’을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지정보를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완전히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게 되었다.

FRBR 모형이 발표된 후 이 모형을 과연 실세계에 구현할 수 있을지, 구현한다면 어떠한 방식이 보다 적절한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논의 끝에 FRBR에서 정의한 개체, 관계, 속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규칙인 RDA가 개발되었고, 이어 MARC 포맷에 대한 개정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대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MARC가 가진 폐쇄성과 구조적 경직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기술과 입체적 표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LC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MARC 포맷을 대체할 새로운 서지 프레임워크인 BIBFRAME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현재는 MARC 레코드를 BIBFRAME으로 변환하거나 BIBFRAME 구조에서 직접 신규 데이터를 입력하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BIBFRAME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시도는 서지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료에 대한 완전한 서지정보를 단일의 목록레코드에 저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료와 관련된 각각의 개체를 식별하고 개체별로 중요한 특성이나 속성을 구분하여 기술한 후 개체들 간의 관계를 의미 있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면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핵심은 당연히 ‘개체’라고 할 수 있다. FRBR에서는 개체를 지적·예술적 산물에 해당하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지적·예술적 산물의 생산이나 제작, 배포, 관리 등에 책임을 지는 개인, 가족, 단체, 그리고 주제에 해당하는 개념, 장소, 사건, 대상 등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개체를 ‘이름’과 ‘식별기호’가 결합된 형식으로 구별하거나 연결하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인 ‘전거형 접근점’은 개체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이름’에 해당한다.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이러한 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하고, 한국목록규칙 제 4판(이하 KCR 4판)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에 대한 우리 도서관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국제적 동향과 RDA 조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접근점’(특히,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자료조직 연구자들의 관심도 대단히 높은 편이다. ICP와 RDA가 발표된 2010년 전후로 하여, 서지모형이나 목록원칙, 각국의 목록규칙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전거형 접근점의 기본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고(이미화 2009, 도태현 2012, 김정현 2012 등), 최근 들어서는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5, 이미화·노지현 2016, 노지현 2016, 이미화 2016).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논의는 서지정보의 데이터로의 변환과 관련 데이터들 간의 연계, 나아가 외부 데이터와의 공유와 통합에 대비하는 전면적인 체제 개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과거 목록규칙의 개정 작업이나 전거를 중심으로 한 기존 논의와 확연히 다른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거대한 서지구조에서 개체를 식별하고 개체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데 있어 핵심적 요소인 전거형 접근점에 대해 우리 도서관계가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더불어 전거형 접근점은 어떠한 형식이 보다 바람직한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KCR 2판 이후로 관련 논의조차 전무하였던 접근점의 개념이 오늘날의 정보환경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2) 국제목록원칙과 최근의 새로운 목록규칙에 반영된 전거형 접근점의 개념과 관련 규정을 분석한 후, (3) 우리의 목록레코드에 반영되어 있는 접근점의 실체를 추적해 가면서, (4)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KCR 4판의 개정 작업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다국어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 그 중에서도 문자 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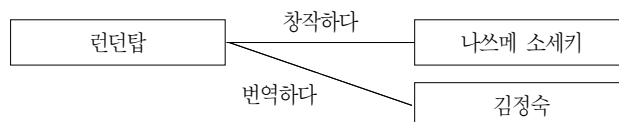
II. 전거형 접근점의 의미와 구성원리

웹 기술의 발전은 오랜 기간 도서관에서 축적해 온 목록레코드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짐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키워드에 의한 검색으로는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이 돌출될 뿐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의미 해석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제공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계에서는 시맨틱 웹(Semantic Web)에 주목하고 있다. 시맨틱 웹 기술에서는 데이터의 추론과 해석,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관련된 다른 정보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맨틱 웹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의 표현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진다.

가령, 다음 <표 1>과 같은 MARC 레코드는 사전에 잘 정의된 구조를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한다. 이용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예시 1]이 “나쓰메 소세키”가 쓴 저작이며, [예시 2]가 “나쓰메 소세키”에 관한 저작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컴퓨터가 이들 데이터가 가진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예시 1]에서 저자에 해당하는 “나쓰메 소세키”와 “김정숙”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이들 관계를 검색에 직접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MARC가 가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시 1]을 <그림 1>과 같이 개체, 관계, 속성을 이용하여 보다 논리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 FRBR이다. FRBR에서는 이용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개체’로 간주하고, 개체나 관계 정보를 ‘속성’으로 기록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런던탑”과 “나쓰메 소세키”, “김정숙”은 독립된 각각의 개체로 간주되며, “런던탑”, “나쓰메 소세키”, “김정숙”이라는 명칭은 이와 관련된 데이터(속성)를 대표하는 이름, 즉 전거형 접근점에 해당한다.

<표 1> MARC 구조에서의 데이터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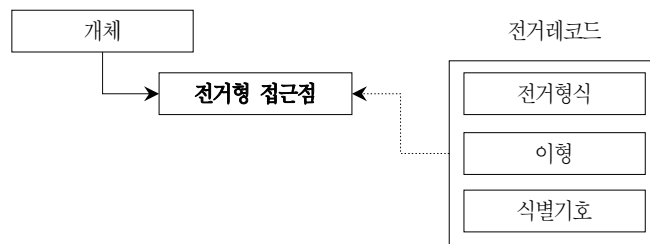
예시 1	245 00 ▼a런던탑 :▼a취미의 유전 /▼d나쓰메 소세키 지음 :▼e김정숙 옮김 700 1 ▼a 나쓰메 소세키 700 1 ▼a 김정숙
예시 2	245 00 ▼a 나쓰메 소세키 의 교육관 연구 /▼d김승연 700 1 ▼a김승연



<그림 1> 개체-관계를 이용한 데이터 표현

이러한 전거형 접근점은 각 개체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거대한 서지세계에서 다양한 관계로 얽혀 있는 관련 개체들을 상호 연결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FRBR 개념모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표준인 RDA, 그리고 차세대 서지기술 구조인 BIBFRAME¹⁾로 이어지는 새로운 체제에서도, 전거형 접근점은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나아가 웹 환경에서 도서관 외부의 다양한 데이터들과 연결하는 기준점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전거형 접근점을 전통적인 ‘표목’의 연장선으로만, 혹은 하나의 자원에 대한 ‘접근점’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KCR 4판의 개정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서도 기존 목록규칙이나 KORMARC과 일정 정도 분리하여 전거형 접근점의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록레코드에 포함된 ‘일부분’이 아니라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독립된’ 데이터이며, 도서관 내부적 용도가 아니라 웹에서의 데이터 공유와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가 참조해야 할 국제적 원칙이 바로 ICP이다. ICP에서는 전거형 접근점에 관한 사항을 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전거형 접근점과 관련된 원칙만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여야 하며 (ICP 6.3), (2) 이를 위해 개체의 이름을 ‘전거형식’(authorized forms)과 ‘이형’(variant forms)으로 구분하고(ICP 6.1.1), (3) 개체의 이름에 대한 전거형식과 이형은 전거레코드를 통해 제어되어야 하며(ICP 6.1.1.1, 6.2.3), (4) 전거레코드는 전거형식과 이형, 식별기호 등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속성을 수록하여야 한다(ICP 6.3, 7.1.2.2).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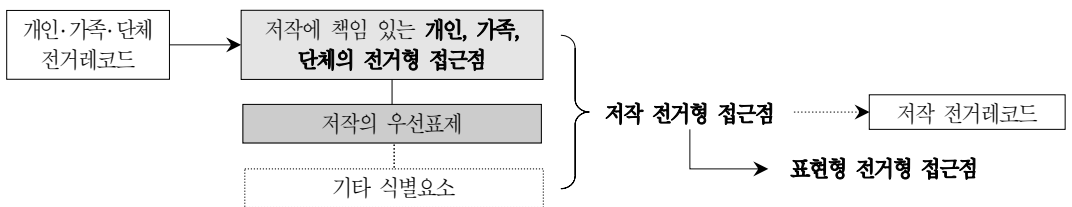


<그림 2> 개체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의 기술 구조

1) MARC이 개체-관계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자, LC에서는 MARC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서지 프레임워크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2011년 10월에 발표된 BIBFRAME은 RDF를 이용하여 컴퓨터가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하고 식별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LC에서는 서지 정보의 유용성 및 도서관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와 공유의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2016년 4월에 BIBFRAME 2.0을 발표하였다. BIBFRAME 2.0에서는 저작(work), 인스턴스(instance), 개별자료(item)로 정의되는 개체와 이들 개체와 관련 있는 개인이나 단체(agents), 주제(subjects), 사건(events)으로 구성된 서지모델을 제안하고 있다(Library of Congress, 2016).

이처럼 ICP에서는 개체를 식별하고 관련된 개체들을 연결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써 ‘전거형 접근점’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거형 접근점에 대해 (1) 개체를 일관된 방식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근거로 해야 하며(ICP 6.3.3), (2) 그 이름은 ‘표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ICP 6.3.1)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ICP에서는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에 대한 원칙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가령, 개체의 이름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언어나 문자로 표현된 경우 (1) 원문의 언어나 문자, (2) (1)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나 문자가 아닌 경우 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언어나 문자를 전거형 접근점으로 선정하되, (3) 이용자가 원문의 언어나 문자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전거형식의 이름이나 이형의 이름 중 하나에 원문의 언어나 문자를 기술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ICP 6.3.2).

ICP가 각국의 목록 작성이나 목록규칙 제정(개정)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 RDA는 실제 사례에의 적용을 위한 세부 준칙에 해당한다. RDA에서는 전거형 접근점을 “개체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접근점”(RDA 5.1.4)으로 정의하고, 저작, 표현형, 개인,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방법을 예시와 함께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RDA에서 각 개체는 ‘저작’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 전거형 접근점은 (1) 저작의 우선표제(preferred title)를 기본으로 하되, (2) 해당되는 경우 저작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을 포함하고,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 전거형 접근점이 존재하는 경우 기타 식별요소(저작의 형식, 일자, 원생산지 등)를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DA 0.6.3). 여기서, (2)의 저작에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은 다시 그와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 전거레코드에서 전거형식을 식별하여 채기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기타 속성과 함께 저작 전거레코드를 통해 제어되며, 표현형의 속성(내용유형, 언어 등)을 추가하여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으로도 활용된다. 저작 전거형 접근점을 중심으로 다른 개체의 전거형 접근점 작성 및 전거레코드와의 연계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 RDA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구성 및 기술 방법

이렇듯 RDA에서는 “전거형 접근점 =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이름”이라는 ICP의 대 원칙을 준수하면서 ‘문자열’로 구성되는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지침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

다. RDA를 적용하여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 LC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 사례에서 저작 전거형 접근점인 “Rowling, J. K.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은 이 저작에 대한 다양한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 및 관련된 다른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 저작에 대한 속성과 관계는 <표 2>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 Rowling, J. K. 1965- .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저작 전거형 접근점>
Rowling, J. K. 1965- .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Arabic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
Rowling, J. K. 1965- .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Chinese	
Rowling, J. K. H1965- .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French	
Rowling, J. K. 1965- .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Korean	
→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Motion picture)	<저작 전거형 접근점>
→ Rowling, J. K. 1965- . 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저작 전거형 접근점>
→ Rowling, J. K. 1965- . Harry Potter and the prisoner of Azkaban	<저작 전거형 접근점>

<표 2> 저작의 속성과 관계 기술

속성	기술 예시
전거형 접근점	Rowling, J. K.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이형 접근점	Rowling, J. K. Harry Potter & the Chamber of Secrets
저작의 형식	Novel
	Fantasy fiction ; Children's stories
저작의 일자	1998
저작의 원생산지	Great Britain
저작의 기타 식별특성	-
관련 저작(개작)	<i>Adapted as motion picture (work):</i>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Motion picture)
관련 저작(전편)	<i>Sequel to:</i> Rowling, J. K. 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관련 저작(후편)	<i>Sequel:</i> Rowling, J. K. Harry Potter and the prisoner of Azkaban

한편, 이렇게 작성된 전거형 접근점은 도서관 내·외부 데이터와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식별자로도 표현된다. LC에서는 LOD(Linked Open Data)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전거형 접근점에 URI를 부여하고 있으며, VIAF에서는 이들 데이터에 VIAF ID와 VIAF links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 “Rowling, J. K.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는 <표 3>과 같은 식별자로도 표현된다. 전거형 접근점에 부여된 이들 식별자는 문자열로 구성된 전거형 접근점과 함께 관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표 3〉 전거형 접근점에 부여된 식별자 사례

식별자 유형	기술 사례
URI	http://id.loc.gov/authorities/names/no2013059077
VIAF ID	205797426
VIAF links	http://viaf.org/viaf/205797426

Ⅲ. 우리의 목록 전통과 접근점 기술 사례

이상에서 살펴본 전거형 접근점은 ① 특정 개체를 발견하는 수단, ② 특정 개체와 관련된 자료를 발견하는 수단, ③ 특정 개체와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를 발견하는 수단, ④ 특정 개체를 주제로 하는 자료를 발견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日本 国立国会図書館 2015). 개체-관계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우리의 목록 환경에서, 더구나 ‘전거형식’이나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조차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전거형 접근점의 구축은 낯설고 요원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 목록의 기능을 확장하고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유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전거형 접근점의 개념 도입과 구축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장에서는 우리의 목록 전통과 우리 도서관에서 구축한 목록레코드의 실제 사례를 참조해 가면서 보다 세부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1. 접근점 관련 규정

주지하다시피 KCR 4판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표목의 선정과 형식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기본표목’과 특정 표목에 대해 하나의 특정 형식을 표준형식으로 고려하는 ‘통일표목’의 개념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한국도서관협회 2003, vii-ix). 뿐만 아니라 표목의 선정과 형식도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의 마련을 생략하였다. 그 전에 발간된 KCR 3판에서도 표목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못하였다. 표목올림지시에 대한 간략한 사례만 제시하였을 뿐 표목의 선정과 형식에 대한 규정은 후속작업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이다(한국도서관협회 1983). 따라서 우리의 목록 전통에서는 KCR 초판과 수정판에 있는 『1. 표목의 선정』과 『2. 표목형식』, 그리고 KCR 3판의 『2. 표목올림지시』에서 그나마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거형 접근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저작 전거형 접근점’, 즉 저작의

표제(우선표제)와 저작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가 결합된 형태가 기존 규칙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KCR 초판과 수정판에서는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의 대상이 되는 ‘저자’(개인저자, 단체저자)와 ‘표제’(서지적 표제, 통일표제)에 대한 접근점 규정을 별도로 다루고 있어 이를 토대로 전거형 접근점의 기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KCR 초판과 수정판에서는 접근점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위해 다음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²⁾: (1) 접근점의 형식은 ‘한글’로만 한다, (2) 외국인명과 표제 등은 ‘번자’ 표목으로 한다.(한국도서관협회 1964, iii).³⁾ 이에 따라 다음 <표 4>와 같이 한자로 표기된 한국인명이나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인명, 그리고 한자나 외국어로 표기된 표제 등의 접근점은 모두 한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 KCR 1~3판의 접근점 규정

구분	접근점 예시	설명
한국인명	이서구	자료에 “李瑞求 著”로 기재되어 있음
서양인명	아부들, 바하 부루크, 스토포드 액잭만, 요안 페텔	자료에 “바하 아부들 저”로 기재되어 있음 자료에 “Stopford Brooke 著”로 기재되어 있음 자료에 “エッセルマン 著”로 기재되어 있음
일본인명	아마키도 쿡키 쇼오토쿠타이시	자료에 “山木戸克己 著”로 기재되어 있음 자료에 “聖德太子”로 기재되어 있음
일반단체	조선일보사 편	자료에 “朝鮮日報社 編”으로 기재되어 있음
정부기관	한국. 해군수로국 편	자료에 “海軍水路局 編”으로 기재되어 있음
통일표제	성서. 신약. 한국어 불전. 화엄경 심청전	“성서”를 표목으로 하여 부표목(성전명, 언어, 발행년도) 부기 “불전”을 표목으로 하고 부표목(三藏 각 부 또는 관용 명칭) 부기 저자를 알 수 없는 고전은 관용 표제를 통일표목으로 기록
일본어 표제	진지소쇼오데즈크호오	자료에 “人事訴訟手續法”으로 기재되어 있음(일본어로 된 원서)

KCR 초판과 수정판에서 접근점의 형식을 이처럼 한글로 통일시킨 이유에 대해, 당시 이 규정을 제정한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는 “접근점은 카드목록을 배열하는 기준이 되므로 한글이 아닌 것은 한글로 표기하여 배열하여야 하기 때문”(한국도서관협회 1966, 82)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한글 형식의 접근점이 ‘업무효율’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규칙의 해설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목록조직을 간편하게 할

2)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KCR 4판에 이르러서야 ‘표목’ 대신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KCR 4판 이전에 사용되었던 ‘표목’을 모두 ‘접근점’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3) KCR 1판과 2판에서는 한국인명을 비롯한 모든 개인의 이름은 성과 이름 사이에 콤마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원칙에 포함시켰지만, 3판에서 이 원칙은 변경되었다. 따라서 1, 2판의 규정 중 구두점에 대한 내용은 논의의 본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 그 표기를 생략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무 능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카드목록의 공간 절약에 도움을 주기 때문”(장일세 1968, 82)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CR 초판에는 “山木戶, 克己”와 같이 일본인명의 원어(일본한자) 표기나, 영어로 쓰여진 저작에 대해 “Butler, Pierce”, “Lamb, Charles”, “Braun, Otto”와 같은 로마자 형식의 예시가 포함되어 있어, 규정에서조차 접근점의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지는 않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명이나 외국어 표제의 한글 표기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부언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쉽게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름의 형식을 저자의 국적을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학자도 있고, 본문에 쓰여진 언어와 일치하는 형식의 이름을 표목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국제적으로 일치된 견해가 없어서... 도서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 규정의 적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개별 도서관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다(장일세 1968, 150).

한편, KCR 1, 2판의 접근점 규정에는 개체 식별을 위한 요소도 미약하나마 포함되어 있다. 가령, 개인명을 식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생몰년을 사용하되(KCR 제43조), 생몰년만으로 구분이 어려운 동명이인 등에 대해서는 역조(국적), 직업, 世系 등을 원괄호로 묶어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CR 제43조). 뿐만 아니라 이름 변경에 대해서는 최신의 이름을 채기하고 변경 전 이름으로부터 참조하는 규정(KCR 제47조) 등도 포함되어 있다(<표 5> 참조).

<표 5> KCR 1, 2판의 접근점 식별요소와 개체 간 연결 예시

접근점의 식별요소	이름 변경에 대한 참조 표시
김동리, 1911-	이현로 → 참조 : 이선로 [변경 전 이름]
이순, ?-755 (신라) 이순, ?-1507 (조선)	
박용구, 1921- (소설가) 박용구, 1914- (음악가)	

이러한 내용은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규정을 마련하는데 충분히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종교경전이나 무저자 고전에 대한 통일표제를 제외하고는 전거형 접근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우선표제’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고, 아래 예시(KCR 2. 제5조 C항)와 같이 외국어(일본어)로 쓰여진 저작의 접근점을 모두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접근점의 기능이 목록의 배열이나 편성에 국한되지 않은 온라인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人事訴訟手續法, 山木戸 克己 著 ; 調停法仲裁法, 小山 昇 著. 東京, 有斐閣, 昭和33(1953)

접근점 : 야마카도 쿡키, 1910-

진지소쇼오테즈스키호오

고야마 노보루. 쇼오테이호오·츠후사이호오

← 저자 ‘山木戸 克己’에 대한 접근점

← 표제 ‘人事訴訟手續法’에 대한 접근점

← 이름/표제 ‘小山 昇. 調停法仲裁法’에 대한 접근점

2. 접근점 기술 사례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의 목록레코드에 포함된 접근점의 기술 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MARC 서지포맷에서 1XX, 240, 6XX, 7XX, 8XX 필드는 접근점에 해당하며, 이들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거레코드를 통해 제어된 형식으로 일관되게 기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도서관들 중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고 있는 도서관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4개 대학도서관에 불과하다. 이들 도서관에서는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총서명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접근점의 형식을 결정하거나 서지레코드에 해당 전거데이터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거레코드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서지레코드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점이 기술되어야 하므로 전거레코드를 구축하지 않는 도서관에서도 접근점 데이터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지금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고 있는 4개의 대학도서관과 전거레코드를 구축하지 않는 4개의 대학도서관을 각각 선정하여 이들 도서관에서 구축한 접근점의 실체를 살펴보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⁴⁾

접근점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글 번역서가 간행된 외국인 저자의 저작, 그 중에서도 우리와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인 저자의 저작을 선택하였다.⁵⁾ 주지하다시피 일본인명에 대한 표기 방식은 일본 음의 한글 표기, 한자의 한글 음 표기, 일본어 원어 표기(일본한자, 가타가나, 히라가나)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일본어 저작의 한글 표제 또한 음역, 번역, 의역 등에 따라 완전히 상이하게 표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동일한 명칭에 대한 상이한 이름이나 상이한 표기 방식을 일관되게 기술함으로써 관련 저작의 집중이나 연결 혹은 상이한 저작의 배타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접근점이다. 이에 접근점의 실체를 추적하고, 나아가 우리의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을 논의하는데 일본인 저자의

4) 이들 8개 대학도서관은 주로 original cataloging을 수행하는 도서관들로서 국립대(법인화 대학 포함) 4곳과 사립대 4곳이다. 분담편목에서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이들 도서관에서 구축한 목록레코드를 다른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도서관을 사례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5)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개인명 전거의 구축 건수는 2016년 9월 기준으로 국내인명(75%), 일본인명(17%), 중국인명(8%) 순으로 나타난다(국립중앙도서관 2016). 이는 국내 도서관의 소장자료 중 일본인이나 중국인 저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한자권에 속하면서 그 표기 방식이 다양한 일본어 저작과 중국어 저작에 주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일본어 저작을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저작이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사례로 선택한 저작은 다수의 한국어 번역본이 간행된 바 있는 나쓰메 소세키의 『마음』(원저 표기: 夏目漱石. こころ)이다. 사례로 선정한 저자 및 저작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나쓰메 소세키(1867-1916)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마음』, 『도련님』, 『폴베개』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이다.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는 필명이며, 본명은 ‘나쓰메 긴노스케’(夏目金之助)이다. 나쓰메 소세키의 저작 다수가 한글로도 번역되었는데, 1914년 일본에서 처음 발표된 『こころ』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편의 한글 번역서(한글 표제: 『마음』)가 발간되었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9개 도서관에서는 원저작 이외에 평균 10.1권의 한글 번역서를 소장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 대한 접근점이 현행 목록레코드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저작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을 추출하였다. 원저작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은 서지레코드에서 개인명 접근점(100필드 또는 700필드)을 추출하고, 이를 표제(245 ▼a)와 결합하였다. 다음으로, 복수의 번역서로부터 전거형 접근점을 추출하였다. 번역서에 대한 서지레코드에서도 개인명 접근점을 추출한 후 이를 표제와 결합하였다. 번역서의 경우 ‘우선표제’에 대한 기준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CP와 RDA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⁶⁾ 일차적으로는 원어 표제를, 이어 한글 표제를 순차적으로 추출하였다. 일본어 원어 표제는 통일표제(원표제)(246 ▲9 ▼a)로부터 추출하였으며(<표 6>에서 ㉠부분), 한글 표제는 본표제(245 ▼a) 또는 이형표제(740 또는 940필드)로부터 추출하였다(<표 6>의 ㉡부분). 9개 도서관에서 위 사례에 대한 접근점의 추출 결과는 <표 6>과 같다.

6) 저작 전거형 접근점에서 가장 핵심요소는 저작의 ‘우선표제’이다. 우선표제는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선택된 표제나 표제 형식”을 의미한다(RDA 6.2.2). 일반적으로 우선표제는 그 저작을 구현한 자원이나 참고정보원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진 원어로 된 표제’로 선정하는데(ICP 6.3.2.1, RDA 6.2.2.3), 원문의 언어나 문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목록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 중 구현형이나 참고자료에 기재된 형식을 우선표제로 선정할 수도 있다(ICP 6.3.2.1.1).

<표 6>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사례

구분	원저작	한글 번역서
전거 구축	A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ころ ㉠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ころ ㉡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마음
	B	Natsume, Soseki 1867-1916. ころ ㉠ Natsume, Soseki 1867-1916. Kokoro. Korean ㉡ Natsume, Soseki 1867-1916. 마음
	C	하목수석 夏目漱石, 1867-1916. ころ ㉠ 하목수석 夏目漱石, 1867-1916. ころ ㉡ 하목수석 夏目漱石, 1867-1916. 마음 하목수석 夏目漱石, 1867-1916. 고고로 하목수석 夏目漱石, 1867-1916. 꼬꼬로
	D	하목수석 夏目漱石. ころ ㉠ 하목수석 夏目漱石. ころ ㉡ 하목수석 夏目漱石. 마음 하목수석 夏目漱石. 고고로 하목수석 夏目漱石. 꼬꼬로 하목수석 夏目漱石. 심
	E	하목 수석 =夏目漱石, 1867-1916. ころ ㉠ 하목 수석 =夏目漱石, 1867-1916. ころ ㉡ 하목 수석 =夏目漱石, 1867-1916. 마음
전거 미구축	F	夏目漱石, 1867-1916. ころ ㉠ 夏目漱石, 1867-1916. ころ ㉡ 夏目漱石, 1867-1916. 마음
	G	하목, 수석, 1867-1916. ころ 하목, 수석. ころ 하목수석. 心 ㉠ 하목, 수석, 1867-1916. 마음 하목, 수석. 마음 하목수석. 마음
	H	(원저작 없음) ㉠ 나쓰메 소세키. ころ 나쓰메 소세키. 心 나쓰메 소세키. Kokoro 나쓰메 소세키 夏目漱石, 1867-1916. ころ ㉡ 나쓰메 소세키. 마음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마음 나쓰메 소세키 夏目漱石, 1867-1916. 마음
	I	Natsume, Soseki. ころ ㉠ Natsume, Soseki, 1867-1916. ころ Natsume, Soseki, 1867-1916. 마음 [통일표제 없음] Natsume, Soseki. 마음 [통일표제 없음] 나쓰메 소세키. 마음 [통일표제 없음] ㉡ Natsume, Soseki, 1867-1916. 마음 Natsume, Soseki. 마음 Natsume, Soseki, 1867-1916. 마음 나쓰메 소세키. 마음

사례로 선정한 9개 도서관의 접근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도서관에서 원저작 및 한글 번역서에 사용하는 ‘우선 개인명’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표 6>에서 보듯이, 전거레코드를 구축하지 않는 도서관에서 한글

7) ‘우선 개인명’은 MARC 레코드의 100필드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되, 1XX 필드를 사용하지 않는 도서관에서는 첫 번째 700필드에 기술된 데이터를 우선 개인명으로 간주하였다.

번역서에 적용하고 있는 우선 개인명의 형식은 일관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았지만, 원저작에 적용된 우선 개인명의 형식이 한글 번역서에 적용된 형식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원저작과 번역서에 사용되는 우선 개인명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9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우선 개인명의 형식에서는 도서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자의 한글 음 표기(“하목수석” 또는 “하목, 수석”)를 우선 개인명의 형식으로 선택한 도서관이 가장 많았으며(4개 도서관: C, D, E, G), 이어 일본 음의 한글 표기(“나쓰메 소세키”)와 일본 음의 로마자 표기(“Natsume, Sōseki” 또는 “Natsume, Soseki”)를 사용하는 도서관이 각각 2개관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어 원어(“夏目漱石”)를 사용하는 도서관은 F도서관이 유일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표목에 대한 유일한 국내 지침이라 할 수 있는 KCR 초판과 수정판에서는 접근점을 ‘한글’ 형식으로 표기하되, 외국인명은 ‘번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볼 때 이들 형식 중에서는 일본 음의 한글 표기인 “나쓰메 소세키”(또는 “나쓰메 소세키”)가 규정에 합당한 형식이라 볼 수 있다. 규정에 없는 ‘한자의 한글 음 표기’가 현재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 이렇듯 선호되는 현상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본 음의 한글 표기보다는 한자의 한글 음 표기가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표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⁸⁾

동일 개인명에 대한 접근점의 형식은 한 도서관 내에서도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이번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전거레코드를 구축하지 않는 도서관들 중에서 F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동일 개인명에 대한 접근점이 ‘우선 개인명’의 형식은 물론이고 접근점에 포함된 ‘기타 식별요소’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G, H, I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명 접근점의 사례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동일 개인명에 대한 상이한 접근점의 형식

G도서관	H도서관	I도서관
하목수석	나쓰메 소세키	나쓰메 소세키
하목, 수석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Natsume, Soseki
하목, 수석, 1867-1916	나쓰메 소세키 夏目漱石, 1867-1916	Natsume, Soseki, 1867-1916
		Natsume, Sōseki, 1867-1916

8) 이러한 이유로 KORMARC 통합서지용(2014)에서는 접근점의 예시에 이처럼 상이한 형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동일 일본인명에 대한 상이한 접근점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100 1 ▽a가와바타 야스나리, ▽d1889-1972 [한글 번자 표기]
- 100 1 ▽a천단강성, ▽d1889-1972 [한자의 한글 음 표기]
- 100 1 ▽a川端康成, ▽d1889-1972 [원어 표기]
- 100 1 ▽aKawabata, Yasunari, ▽d1889-1972 [로마자 표기]

다음으로, 전거형식의 이름이나 이형의 이름 중 하나를 통하여 원문의 언어나 문자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ICP 원칙에 따라 일본인명의 원어 표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고 있는 도서관과 전거레코드를 구축하지 않은 도서관들 간에는 물론이고,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고 있는 도서관들 사이에서도 일본인명의 원어 표기 방식은 모두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전거레코드를 통해 우선 개인명과 이형 개인명을 제어하고 있는 도서관들 중 A, B도서관에서는 일본인명의 원어 표기를 전거레코드 내에 ‘이형’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C, D도서관에서는 이를 접근점의 일부로 간주하여 우선 개인명 다음에 ‘이름의 완전형’으로, 그리고 E도서관에서는 ‘이름의 한자표기’로 각각 기록하고 있었다. C, D도서관과 달리, E도서관에서는 개인명 접근점에 포함된 일본인명의 원어 표기를 이형 접근점으로도 기록하고 있었다(<표 8> 참조).

<표 8> 전거레코드 구축 도서관에서의 일본인명 원어 표기

	개인의 전거형 접근점	개인의 이형 접근점
A도서관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夏目漱石, 1867-1916
B도서관	Natsume, Sōseki 1867-191	夏目漱石, 1867-1916
C도서관	하목수석 夏目漱石, 1867-1916	원어를 이형 접근점에 기록하지 않음
D도서관	하목수석 夏目漱石	원어를 이형 접근점에 기록하지 않음
E도서관	하목 수석 =夏目漱石, 1867-1916	夏目漱石, 1867-1916

전거레코드를 구축하지 않는 도서관에서 일본인명의 원어 표기도 도서관들 간 혹은 저작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전거레코드를 구축하지 않는 도서관에서는 우선 개인명에 대한 이형 개인명을 서지레코드(700필드 또는 900필드)에 직접 기록하고 있었는데, 원어로 된 이름을 우선 개인명으로 채택하고 있는 F도서관을 제외하고, 한글 또는 로마자 형식을 우선 개인명으로 사용하는 G, H, I도서관에서는 원어 표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자의 한글 음을 우선 개인명의 형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G도서관에서, 이형 개인명은 다음 <표 9>와 같이 기술되어 있었다.

이에 더해,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핵심요소인 저작의 ‘우선표제’를 ‘원어로 된 표제’를 기준으로 작성 또는 추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먼저, 사례로 선정한 저작의 원어 표제는 “こころ”이며, 원저작에 대한 서지레코드에 이 표제는 모두 본표제에 기술되어 있었다. 문제는 한글 번역서에 원어로 된 표제가 일관되게 기술되어 있는지의 여부였다. 9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글 번역서의 서지레코드를 확인한 결과, 원어로 된 표제 “こころ”는 대

<표 9> 전거레코드 미구축 도서관(G도서관)에서의 일본인명 원어 표기

	서지레코드 1	서지레코드 2	서지레코드 3	서지레코드 4
우선명	하목수석	하목, 수석	하목, 수석	하목,수석, 1867-1916
이형명	나쓰메, 소세키 Natsume, soseki 夏目 漱石	나쓰메, 소우세키 Natsume, So^seki	夏目, 漱石 나쓰메, 소세키 하목, 수금지조 나쓰메, 킨노스케	나쓰메, 소세키

부분 ‘원표제’에 기술되어 있었지만, B도서관의 경우 원어 대신 로마자 형식의 표제(“Kokoro. Korean”)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었고, G, H도서관에서는 일본 가나 대신 한자 형식(“心”)으로 기록된 사례가 일부 있었다. 반면 총 12건의 한글 번역서를 소장하고 있는 I도서관에서는 단 1건의 서지레코드에서만 원어 표제를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어, 우선표제를 원어 대신 우리 목록이용자에게 익숙한 ‘한글’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한글 표기 형식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일본 음의 한글 표기 형식과 (2) 한글로 번역된 표제.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고 있는 도서관에서조차 표제 전거레코드는 거의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글 표기는 모두 서지레코드를 통해 확인하여야만 했다. 먼저, 원어 표제에 대한 일본 음의 한글 표기는 C, D도서관에서만 발견되었다. 원어 표제에 대한 일본 음의 한글 표기는 모두 이형표제로 기록되어 있었는데(740, 940필드), 그 표기 형식이 “고고로”, “코고로”, “고꼬로”, “고쿄로” 등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이 저작에 대한 한글 번역 표제는 모두 동일한 형식(“마음”)으로 본표제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 외에, 일본 가나 대신 일본 한자에 대응되는 한글 음인 “심”이 이형표제에 기록된 사례도 1건 발견되었다(<표 10> 참조).

<표 10> 한글 번역서에 포함된 다양한 표제 표기 사례

원어로 된 표제	한글 표제		
	일본 음의 한글 표제	한글 번역 표제	기타
こころ Kokoro 心	고고로 코고로 고꼬로 고쿄로	마음	심

IV. 전거형 접근점의 문자 형식에 대한 논의

이처럼 현재 우리 도서관계에서 사용하는 접근점의 형식은 도서관 간은 물론이고, 한 도서관 내에서조차 통일된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접근점의 비밀관성 문제는 검색 과정이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도서관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점에 대한 표준화된 기술규정의 마련이나 동일 접근점에 대한 상이한 형식을 기계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법의 구현에 관해서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여 왔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는 규정의 미비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특히 많이 제기되어 온, 더불어 FRBR의 서지모형 구현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접근점’에 관한 세부규칙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15년부터 저작, 표현형,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언어나 문자로 표기된 접근점의 전거형식에 대해 목록위원회 내에서는 물론이고 도서관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동일한 한자 문화권에 해당하는 중국인, 일본인 등의 전거형 이름이나 우선표제에 대해 이견의 폭이 큰 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도서관계에서 보다 선호하는 접근점의 형식이 무엇인지를 이번 연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도서관 규모면에서나 도서관의 각종 정책개발에 있어 우리 도서관계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들 9개 도서관에서조차 통일된 형식이나 특정 형식에 대한 뚜렷한 선호도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우리 목록규칙의 전통과 현재의 목록레코드에 반영된 실무적 관행을 참고해 가면서 전거형 접근점의 바람직한 형식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는 특정 형식의 적절성에 대해 주장하기 보다는, 관련 사례를 참고해 가면서 다양한 형식의 적용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만, 이 논의에서 일본, 중국한자의 한글 음 표기의 적용(예: 하목수석)은 배제하였다. 일본, 중국한자의 한글 음 표기는 외국인명이나 지명 등에 대한 『표준 외래어(외국어) 표기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실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기 형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이상 이러한 형식을 적용해온 도서관에서조차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인해 최근에 이러한 형식의 전면적 교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논의를 위한 근원으로는 ICP를 활용하였다. ICP에서는 “이름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언어나 문자로 표현된 경우, 저작의 구현형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우선으로 하여 원문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이름을 우선으로 하되”(ICP 6.3.2.1), “원문의 언어나 문자가 해당 목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목록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언어나 문자 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근거로 하여 정할 수 있다”(ICP 6.3.2.1.1)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거형식의 이름이나 이형의 이름 중 하나를 통하여 가능하면 원문의 언어나 문자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ICP 6.3.2.1.2), “번자가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문자변환 표준을 따라야 한다”(ICP 6.3.2.2)고 적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① 원어 형식, ②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한글 형식, ③ 번자 형식으로 구분하여 각각 검토하였다.

먼저,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을 원어로 할 경우, 저작 전거형 접근점은 ‘가장 잘 알려진 원어로 된 표제’로 선정하되, 해당되는 경우 ‘원어로 된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을 원어로 된 표제 앞에 기술하고, 만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접근점이 존재하는 경우 기타 식별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원어로 된 표제나 개인명은 일반적으로 저작이 구현된 자원이나 참고정보원을 통해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한글이나 번자 형식에 비해 표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ICP에서 제안한 첫 번째 원칙에 해당하는 만큼 원저작을 중심으로 저작, 표현형은 물론이고, 다양한 역할을 가진 개인, 가족, 단체와 해당 저작의 주체를 가진 다른 저작을 포괄적으로 연계하는데 매우 용이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⁹⁾ 그러나 원어로 기재된 전거형 접근점은 우리 목록이용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자국어(한글)를 병기하는 방안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을 원어 형식으로 채택한 예시는 다음 <표 11>과 같다.

다음으로,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한글 형식’을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으로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한글 형식은 개인, 가족, 단체의 이름 뿐 아니라 표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9)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일본의 경우, 일본어 음 표기를 병행하기는 하지만 한국과 중국 저작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은 기본적으로 ‘원어’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전체 공개를 예정하고 있는 일본목록규칙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日本圖書館協會 2015).

구분	개인명 전거형 접근점		우선표제
일본 저작	한자와 가나가 혼합된 형식	한자와 가나	일본 한자와 가나가 혼합된 형식
	히라가나로 된 이름 형식	히라가나	
	한자와 가나가 혼합된 형식이 불분명한 경우	로마자	
중국 저작	자료에 한자 형식이 발견되는 경우	한자	한자
	한자 형식이 불분명한 경우	가나	
	한자와 가나 형식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로마자	
한국 저작	자료에 한자 또는 한글 형식이 발견되는 경우	한자 또는 한글	한자 또는 한글
	한글 형식만 발견되는 경우	한글	
	한자 또는 한글 형식이 불분명하고 자료에서 가나 형식이 발견되는 경우	가나	
	한글과 한자 형식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로마자	

<표 11> 원어 형식으로 된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기술 사례

구분	사 례
저작 전거형 접근점	夏目漱石, 1867-1916. ころ 村上春樹, 1949- . ノルウェイの森 魯迅, 1881-1936. 阿Q正傳 日本図書館情報学会誌 天長地久 (映畫)
저작 및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	夏目漱石, 1867-1916. ころ 夏目漱石, 1867-1916. ころ. 한국어(송태욱 : 2016) 夏目漱石, 1867-1916. ころ. 한국어(유은경 : 2016) 夏目漱石, 1867-1916. ころ. 영어(McKinney : 2010)
<검토> 한글 병기 형식	夏目漱石(나쓰메 소세키), 1867-1916. ころ(마음) 또는 夏目漱石, 1867-1916. ころ =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마음

일반적으로 번역서나 참고정보원에서는 개인, 가족, 단체의 이름에 대해 현지 음의 한글 표기, 그리고 표제에 대해 한글 번역이나 의역 또는 현지 음의 한글 표기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표 12>와 같이 구현형(특히 번역서)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한글 형식을 전거형 접근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⁰⁾ 이러한 방식은 앞서의 원어 형식에 비해 저작에 대한 이용자들의 식별력이 월등히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원어 형식을 이형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면, 원문의 언어나 문자로도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표 12> 한글 형식으로 된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기술 사례

구분	사 례
저작 전거형 접근점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마음 무라카미 하루키, 1949- . 상실의 시대 루迅, 1881-1936. 아큐정전 천장지구 (영화)
저작 및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마음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마음. 한국어(송태욱 : 2016)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마음. 한국어(유은경 : 2016)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마음. 영어(McKinney : 2010)

10) 아래의 사례와 같이 동일 저작에 대해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한글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목록규칙에서는 “최초로 간행된 구현형의 한글 형식” 또는 “최초로 간행된 구현형을 알 수 없는 경우 처음 입수된 구현형에 기재된 한글 형식” 등과 같은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표제	ノルウェイの森	Sun also rises	اولاد حارتا رواية
한글 형식	노르웨이의 숲 상실의 시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태양은 다시 뜬다 해는 또 다시 떠오른다 해는 다시 떠오른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게벨라 위의 아이들 우리 동네 아이들

그러나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서 한글 형식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령, 원저작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한글 형식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 ICP에서는 목록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언어나 문자로 대체하더라도 ‘자의적인’ 형식을 배제하고, 반드시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따라서 한글 형식의 접근점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한글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나 표제에 대해서는 ‘원어의 언어나 문자’로 하되,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서 한글 형식이 발견되면 이후에 한글 형식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면 한글 형식의 이름이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나 ‘요시모토 바나나’의 저작 중 한글 표제가 존재하지 않는 미번역본에 대해서는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이름(한글)과 표제(원어)가 서로 다른 언어나 문자로 구성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한글 형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저작에 대해서는 전거형 접근점 전체가 원어로 구성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 동명이인인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에 대해 한글 구현형(번역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라카미 하루키’로, 동명이인이지만 한글 형식의 이름을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어인 ‘村上春樹’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1949- . 상실의 시대	← 구현형에 한글 형식의 개인명과 표제가 있음
무라카미 하루키, 1949- . 初めての文字	← 구현형에 한글 형식의 표제가 없음(미번역본)
村上春樹, 1937- . 平将門伝説	← 동명이인이지만 구현형에 한글 형식의 개인명과 표제가 없어 원어로 표기함

이러한 이유로, 마지막 검토사항인 한글 번자 형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ICP에서는 번자 표기를 원어 형식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도서관계에서도 라틴문자(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는 원어 그대로 표기하지만, 미국의 목록이용자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한국, 중국, 일본, 아랍 문자 등에 대해서는 표준 번자체계를 적용하여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다.¹¹⁾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목록레코드에는 한글 번자 형식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 우리의 목록규칙인 KCR 초판과 수정판에서도 인명이나 표제에 대한 접근점을 한글 번자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바 있어 전거형 접근점에 이러한 한글 번자 형식의 적용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번자 표기는 앞서 B, I도서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자 번자’ 체계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표 6> 참조) 우리나라 표준 외래어(외국어) 표기법에 해당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 도서관계

11) LC의 로마자 번자 표기 사례는 다음과 같다.

Yi, Mun-yöl, 1948- . Samgukchi	← [이문열, 1948- . 삼국지]에 대한 번자 형식
Lu, Xun, 1881-1936. A Q zheng zhuan	← [魯迅, 1881-1936. 阿Q正傳]에 대한 번자 형식

에서 표준 형식으로 채택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¹²⁾ 이번 연구에서는 한글 번자 형식에 대해서만 검토하였다.

한글 번자 형식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의 『외래어(외국어) 표기법』에서는 동양인명이나 지명에 대해 원칙적으로 ‘현지 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한자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인명이나 중국인명은 물론이고, 일본어나 중국어로 된 표제에 이러한 표준 번자 체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번자 체계가 일본한자나 가나, 중국한자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으로 과연 적절한지에 있다. 가령, 앞서 살펴본 나쓰메 소세키의 『こころ』(마음)를 한글 표준 번자를 적용하면 ‘고코로’가 된다. 일본한자로 된 학술지 『日本図書館情報学会誌』도 ‘니혼도쇼칸조호각카이’와 같이 한글 번자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표 13>에서 보듯이 이러한 번자 형식은 앞서 살펴본 ‘원어’나 ‘구현형 또는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한글 형식’에 비해 오히려 식별력이 떨어진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표 13> 번자 형식으로 된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기술 사례

구분	사례
저작 전거형 접근점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고코로 무라카미 하루키, 1949- . 노루웨노모리 [ノルウェーの森] 무라카미 하루키, 1949- . 하지메테노모지 [初めての文字] 니혼도쇼칸조호각카이 [日本図書館情報学会誌] 다카시카시(영화) [だかしかし(영화)]
저작 및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고코로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고코로. 한국어(송태욱 : 2016)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고코로. 한국어(유은경 : 2016)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고코로. 영어(McKinney : 2010)

한글 번자 형식과 관련하여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국립중앙도서관 2012, 2014)의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나 문자 형식으로 기록된 ‘일본인명’이나 ‘중국인명’에 대해 ‘현지 음의 한글 표기 형식’을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일본단체나 중국단체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자와 그 이외의 문자가 함께 있는 경우 한자는 우리 음으로 읽은 한글 표기 형식을, 그 이외의 문자는 있는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예: 日本建築學會 → 일본 건축학회, 環經プランニング學梅 → 환경プランニング학회). 일본단체나 중국단체의 이름에 적용하는 이러한 방식을 우선표제에 대입한 결과는 <표 14>와 같지만, 이 경우 일본 가나

12) B도서관에서는 로마자 번자 표기를 위해 LC를 참조하고 있다. 이러한 로마자 번자 형식을 이번 논의에서 제외 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LC의 번자체계가 우리의 공식적인 표준 번자체계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번자 형식을 기술할 때마다 LC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중속적인 위치에 놓인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자와 한자의 한글 음 표기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접근점에 따라 일본 음의 한글 표기와 한자의 한글 음 표기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표준 형식으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14〉 국립중앙도서관 한글 번자 형식을 적용한 전거형 접근점의 기술 사례

구분	사례
저작 전거형 접근점	나쓰메 소세키, 1867-1916. ころ 무라카미 하루키, 1949- . ノルウェーの삼 무라카미 하루키, 1949- . 초めて의문자 일본도서관정보학회지 だがしかし (영화)

이처럼 다국어 저작, 특히 동일 한자권에 속하는 일본, 중국 저작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특정 형식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거나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목록규칙의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새로운 서지세계의 기초를 세우고자 하는 작금의 논의에서, 전거형 접근점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비록 이번 연구에서 명쾌한 결론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번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도서관계의 의견과 관련 사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 ‘표준’화된 지침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화된 지침의 마련에서는 저작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체를 식별하고 연결하는데 어떠한 형식이 보다 적합한지 그리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어떠한 형식이 보다 용이한지 등을 포괄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표준화된 지침의 적용과정에서 데이터의 병기나 임의추가, 임의생략 등 개별 도서관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동시에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1998년에 발표된 FRBR는 오랫동안 유지해 온 목록전통의 근간을 뒤흔드는 획기적인 모형로 여겨졌다. 기존의 평면적인 구조의 서지레코드를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오늘날의 정보환경에 적합한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이를 실행하거나 구현하고자 할 때 여러 장애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 목록의 근간이 되는 원칙에서부터 데이터를 표현하고 구조화하는 포맷에 이

르기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다양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FRBR의 실현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FRBR를 실현하는데 있어 핵심은 각 개체를 나타내는 ‘접근점’이라 볼 수 있다. 개체를 발견하고, 식별하고, 관련 개체를 연결하는데 있어 접근점은 곧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접근점은 전거레코드를 통해 제어된 형식, 즉 ‘전거형 접근점’으로 일관되게 나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거형 접근점은 전통적인 접근점(표목)의 개념과 일견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구성요소, 작성방법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기본표목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무게중심이 ‘저작자’(개인, 가족, 단체)에 쏠려 있었다면, 현재의 논의는 ‘저작자’보다는 ‘저작’을 중심으로 도서관 내·외부의 관련 개체와 연결하고 각 개체에 대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데 핵심이 있다. 그 자체로서 커다란 의미를 지녔던 개인, 가족, 단체 접근점도 저작 전거형 접근점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자 저작과 연관된 개체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면서, 접근점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의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 특히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문자 형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우리의 목록규칙에 담겨 있는 관련 조항과 현행 목록레코드에 반영된 접근점의 형식을 살펴보고, 새로운 목록원칙인 ICP를 준거로 하여 ① 원어 형식, ②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한글 형식, ③ 번자 형식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국어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형식은 ① 원어 형식을 적용하되 한글을 병기하는 방안, ②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을 통해 가장 알려져 있는 한글 형식을 적용하는 방안 중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②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어를 반드시 이형에 포함하고,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서 한글 형식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어 형식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상세하게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지만, 저작의 원어가 한글, 한자(일본 가나 문자 포함), 로마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번자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마무리되어, 전거형 접근점이 관련된 다양한 개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관련된 식별 속성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후속논의가 보다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2012.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 : 개인명(안).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내부문서].

- 국립중앙도서관. 2014. 국립중앙도서관 선거데이터 기술 지침 : 단체명(안).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내부분서].
- 국립중앙도서관. 2015.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데이터의 FRBR 구현을 위한 방안 연구: 저작 및 표현형 기술을 중심으로.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16. 국가선거데이터 공동 구축 방안. 전국도서관대회(제53회 : 대구).
- 노지현. 2016. 개인명 선거제어 및 선거형 접근점 작성을 위한 한국목록규칙 개정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201-229.
- 도태현. 2012. RDA의 저작과 표현형의 접근점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27-48.
- 이미화, 노지현. 2016. 한국목록규칙에서 선거형 접근점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47-69.
- 이미화. 2012. 국제목록원칙 2009 제정에 따른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261-280.
- 이미화. 2012. 대학도서관 선거제어 현황분석을 통한 선거제어 방안 모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5-26.
- 이미화. 2016. 저작 및 표현형 선거레코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71-94.
- 장일세. 1968. 한국목록규칙 해설.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1964. 『한국목록규칙』.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1966. 『한국목록규칙』. 수정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1983. 『한국목록규칙』. 제3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IFLA. 2009. *The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www.ifla.org/files/assets/cataloguing/icp/icp_2009-en.pdf> [cited 4. 30].
- Library of Congress. 2016. Overview of the BIBFRAME 2.0 Model. <<http://www.loc.gov/bibframe/docs/bibframe2-model.html>> [cited 2016. 10. 4]
- RDA Toolkit :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http://access.rdatoolkit.org/>> [cited 2015. 9. 1].
- 日本 国立国会図書館. 2015. 新しい『日本目録規則』(新NCR). <<http://www.ndl.go.jp/jp/data/ncr/index.html>> [cited 2015. 11. 16].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Doh, Tae-Hyeon. 2012. "A Study on Instructions for Access Points Representing Works and Expressions in RD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27-48.
- Lee, Mihwa and Jee-Hyun Rho. 2016.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Authorized Access Points in KCR4."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47-69.
- Lee, Mihwa. 2012. "A Study on Direction of Authority Control by Surveying the Authority Control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5-26.
- Lee, Mihwa. 2012. "The Study on the Directions of KCR4 under the New ICP 200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261-280.
- Lee, Mihwa. 2016.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Work and Expression Authority Recor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3): 71-94.
- Rho, Jee-Hyun. 2016. "Suggestions on the Revision of Korean Cataloging Rules for Personal Name Authority Records and Authorized Access Poi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7(2): 201-229.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64. *Korean Cataloging Rules*.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66. *Korean Cataloging Rules*. Revised edition.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83. *Korean Cataloging Rules*. 3rd edition.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n Cataloging Rules*. 4th edition.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Chang, Il Se. 1968. *Introduction to Korean Cataloging Rules*.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